

경미한 학폭 올해부터 생기부 기록 안한다

교육부 학교폭력 개선방안

학교 자체 해결제 도입

학폭위 회부도 자제키로

올해부터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경우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해결하는 '학교 자체 해결제'도 도입한다. 일선 학교에 설치됐던 학폭위는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교육부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9단계 학교폭력 해결학생 조치 중 서면사과와 접촉·협박·보복금지, 교내봉사 등 1~3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생부 기재 유보한다.

여기에는 가해 학생이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 조건을 따르지 않거나 1~3호 조치 2회 이상 받을 경우에는 가장 조치하면서 이전 조치까지 학생부에 기록한다.

이같은 조치는 2012년부터 모든 학교폭력 가해가 학생부에 기재되면서 가해자측에서 학폭위 재심이나 교육청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급증해 가해·피해 학생 모두의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장석웅 전남도 교육감이 최근 "현행 학교폭력 관련법이 문제가 많다. 경미한 사안도 의무적으로 학폭위를 열도록 돼 있다. 학교가 각종 소송과 행정심판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고교생들 불이익도 적지 않다"고 언급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다.

장 교육감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이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 자체 종결권(학교자체 해결권)을 부여해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다. 학폭위 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면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 위원 비중을 현행 '절반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낮추고 그 자리를 장학사 등 전문인력과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채우기로 했다.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경우 학폭위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학교가 해결하는 '학교 자체 해결제'도 도입한다. 이 경우 피해 학생 입장에서 사건 은폐·축소 우려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사건을 학폭위에 넘기지 않는 것에 문서로 동의해야 한다.

피해 학생의 신체·정신 피해가 전치 2주 미만인지, 지속적인 폭력은 아니었는지 등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학교 자체 해결 여부는 학교장이 단독 판단하지 않고 학칙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자체 종결 후에도 피해자 측에서 원하거나 은폐·축소 정황이 확인되면 학폭위를 열도록 했다. 학폭위 이관과 학교 자체 해결제는 올해 법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사건 은폐·축소 시도가 확인된 교직원에 대한 징계 강화와 두 차례 이상 가해를 일으킨 학생에 대한 가장 징계도 추진한다.

이번 개선안은 국민 관심이 큰 정책이나 발표 후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숙려제'를 통해 마련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3 달뜨기 03:46
해질 17:59 달짐 14:10

눈이 평평

비 또는 눈 내리며 낮기는 큰폭으로 떨어지겠다.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2.0~3.0
남해 앞바다	북서~북	1.5~3.0	북서~북	2.0~4.0
남해 서부	북서~북	0.5~1.5	북서~북	1.0~2.0
남해 동부	북서~북	1.5~2.5	북서~북	2.0~3.0
남해 대서	북~북동	2.0~4.0	북서~북	2.0~4.0

◇물때

목표	간조	만조
	03:45	11:16
16:56	23:12	
12:52	06:49	
여수	--:--	18:30

◇주간 날씨

2/1(금)	2/2(토)	3/1(일)	4/1(월)	5/1(화)	6/1(수)	7/1(목)
☀	☁	☁	☁	☀	☁	☁
-4/5	-4/9	4/10	2/8	-1/7	0/8	0/9

◇생활지수

- 뇌졸중: 높음
- 감기: 높음
- 미세먼지: 보통

지난해 해양오염사고

13건 늘었지만

유출량은 61% 감소

서해해경은 지난해 서해정 관내에서 해양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유출량이 전년 대비 대폭 감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2017년에는 78건의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해 유류 등 오염물질 72.481t가 유출됐다. 지난해 해양오염사고는 91건으로 13건(16.6%) 늘었지만 유출량은 28.411t로 전년 대비 44.07t(60.8%) 줄었다.

지난해 해양오염사고를 분석한 결과 유출량 1t 미만 사고는 84건으로, 전체 사고건수의 92%를 차지했다.

원인별로는 선박 충돌·좌초 등 해난(海難)에 의한 사고가 35건(38%)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주의(35%), 파손(18%), 고의(9%) 순이었다.

오염원별로는 선박에 의한 사고가 77건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으며 이 중 어선에 의한 사고가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역별로는 선박 통항 및 물동량이 가장 많은 여수해역이 40건으로 가장 높았고 목포(28), 완도(12), 군산(8), 부안(3)이 뒤를 이었다.

/목표=김병관 기자 dss6116@



광주3·1혁명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들이 30일 광주시 동구 YMCA 무진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만세삼창하며 기념사업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3·1운동은 혁명'... '광주 100주년 기념행사추진위' 출범

정명운동 등 다양한 행사

"3·1만세운동은 나라의 주인이 왕에서 백성으로 바뀌는 혁명이었습니다."

"광주3·1혁명100주년기념행사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가 30일 YMCA 무진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1운동 명칭을 '3·1혁명'으로 바꾸는 정명 운동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경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기억기념분과위원장은 격려

사에서 "3·1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은 역사적 의미를 우리 스스로가 폄하시키는 일"이라며 "일제 통치 10년 만에 적폐가 쌓여 백성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3·1운동이 아닌 3·1혁명으로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3·1운동기념사업의 대표 사업으로 3·1운동 명칭을 '3·1혁명'으로 바꾸는 정명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헌법 전문과 국경일 명칭을 바꾸는 운동도 함께 전개한다.

추진위는 이날 출범식에서 친일 행적이 드러난 안익태 선생이 작곡한 애국가 대신 독립군가를 제창했다. 또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기념사업 성공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오는 3월1일에는 광주 전역에서 대규모 만세 운동 재연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이날 100주년 기념행사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추진위는 출범 기자회견문에서 "3·1운동 100주년기념사업은 친일 잔재 등 우리 사회 적폐를 청산하고 남북평화체제, 민주주의의 전진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전남 큰 눈... 일부지역 대설 예비특보

광주·전남지역에 큰 눈이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31일을 기해 곡성과 구례에 대설예비특보(24시간 5cm 이상)를 발령했다. 전남 동부내륙 예상 적설량은 3~8cm, 광주와 일부 전남지역에는 1~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일부 지역에는 5~1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으며, 이번 비와 눈은 오후 3시부터 차차 그칠 것으로 전

망했다. 3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3도로 전남보다 3~4도 가까이 높겠고, 낮 최고기온은 0~4도 분포로 전남보다 8~10도 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31일 오전 8시 전후에 눈이 쌓여 출근길 빙판길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여대 창업지원센터 청년취업아카데미 4년 연속 선정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2019년도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업 수요에 맞는 특화된 취업역량 프로그램 교육을 통해 실무형 인재로 양성해 졸업 후 단절 없는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공심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기과정과 인문·사회·예체능계열 졸업예정자 등 타전공 분야와 융

합을 지원하는 장기과정으로 이뤄진다. 교육과정은 4차 산업에 발 맞춰 단기 과정은 '3D프린터를 활용한 실내건축디자인' 양성과정'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데이터인재개발과정'으로 4월10일부터 5개월간 운영된다. 또 장기과정 'ERP경영회계사무원양성과정'은 5월13일부터 8개월간 운영된다. 참여 가능 학교는 인문·사회계열과 예체능계열 학과이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10%·용자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제품



ESS · 설계 · 시공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발전소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대폭 확대

- 태양광 +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PS) 가중치 5.0 배 -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협력하기로

신재생에너지 3차 2차산업진흥법 제정 - 신·전·차 - 제이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결을 통해 전면적인 규제 정비 개시
- 지자체, 에너지산업 특별조례 제정 추진
- 신·전·차에 대한 등 대규모 프로젝트(4차산업) 추진 가능에 관한 노력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자가용태양광 남는 전력 100% 판매

- 주택, 상가, 공장, 슬라브, 마당, 토지에 태양광 설치하여 한전과 상거래 인여전력을 판매하는 방식
- 빌딩, 창고, 상가, 주택 등에 자가용으로 설치된 태양광 설비라도 쓰고 남는 전기를 시장에 판매하면 REC+SMP가 적용된다. (20년 장기계약 가능)

■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 15KW설치시 예상수익

기존사용량 (KW)	청구금액	태양광설비 후 예상청구금액	설비 후 발전량 (예상발전량-기존사용량)	판매수익 (SMP+REC+전기료절감액)
150	12,390원	2,210원	1,650KW/h	322,259원
200	17,690원	2,210원	1,600KW/h	317,740원
300	44,400원	2,210원	1,500KW/h	324,743원
400	65,760원	2,210원	1,400KW/h	325,805원
500	104,140원	7,090원	1,300KW/h	343,718원
600	136,050원	17,690원	1,200KW/h	355,170원

▶ 자가소비량은 기존 사용량의 40%계산됨

▶ 월 예상발전량은 15KW×4시간×30일=1,800KWh로 월 계산

▶ 판매수익은 SMP+REC+태양광설비후 예상절감액 포함


